

大學新聞의 발행체제

大學新聞은 多元化되어야 한다

鄭 晉 錫

(韓國外大 新聞放送學科)

學校신문? 學生신문?

끝없는 소모전

대학신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 주장이 주류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표현이 약간씩 바뀌기는 했지만 대학신문이 “학교의 신문이나”, “학생들의 신문이나” 하는 논쟁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1970년 무렵부터 학생기자들과 학교당국 간에 대립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논쟁의 연장이었다. 언론사에서는 편집권이 기자들에게 있느냐, 경영주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논쟁과 거의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3선개헌을 거쳐 유신선포를 전후한 무렵 정치적인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學校新聞을 주장하는 논거는 대학신문이 대학 본연의 사명인 학문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서 학사행정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대학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指導的 機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대학신문도 언론기관이므로 사실보도의 논평의 기능을 다해야 하며, 사실보도의 대상은 대학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현실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글도 실어야 한다는 것이 學生新聞 측의 주장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아카데미즘의 기능에 더 비중을 두고 대학신문의 교내외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교측과, 저널리즘의 사명을 내세우면서 대학의 현실참여를 지향하는 학생측의 견해 차이였던 것이다.

이 두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학교당국(또는 주간교수)과 학생기자들 사이에 완전한 타협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맞서서

끝없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의 소재는 단순하다. 한 대학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신문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기자가 패권을 다투기 때문이다.

만일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양자 중 택일의 경우, 어느 한쪽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신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수·학생 간의 합의와 그 대학의 전통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신문은 어느 한쪽의 기능을 가진 신문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霸權主義的 對決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대개 6·29 이전까지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조화된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양시·양비론적인 해결책이 흔히 제시되었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사회·문화·경제

적인 여건이 이러한 결론밖에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언론의 상황도 달라졌다. 大學新聞의 位相과 役割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학교신문’과 ‘학생신문’을 분리함으로써 해결해 보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체 대학신문’으로

창간된 『대학신문』

해방후 첫 대학신문은 1947년 9월 1일에 창간된 중대학보였으나, 대학신문이 본격적으로 발행된 것은 6·25 전쟁기간이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은 1947년 7월 1일 문리대 기관지로 창간되었다가 1952년 2월 4일에 재창간되었다. 이 때의 대학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崔奎南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전시에에는 흔히 당각하기 쉬운 학문의 권위를 옹호하며 부산과 그의 각지에 산재하여 있던 각 대학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학생과 교수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전시대학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위하여 『대학신문』은 서울대학교에서 창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난지에서의 대학신문은 ‘범대학 신문’으로 탄생하였는데 주필은 徐恒錫이

었다. 교수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제작을 맡았고 판형은 타블로이드 4면 주간발행이었다. 교수들의 주장과 연구, 학생들의 과외활동, 국내의 교육계와 학계·문화계의 동향, 해외학계의 뉴스 등을 실기로 했다.

그러나 휴전후 각 대학이 부산에서 서울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게 되어 『대학신문』은 자연히 ‘서울대학교 신문’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9월에는 학생기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때까지 학생들은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학생기자를 두고 학생들이 신문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도 교수들의 논문과 학교의 소식이 주로 실렸다.”

대학신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의 4·19 이후였다. 이 때부터는 학내 소식과 함께 일반사회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경향이 일어났으며, 1970년대에 와서는 학생운동의 첨병 역할까지 기대하여 학생자율의 신문을 요구하게까지 되었다. 대학신문 기자들은 ‘대학신문기자연합회’를 결성하여 『箴脈』이라는 기관지를 창간하였다. 1980년대 초기에 와서는 대학자율화 바람에 편승하여 대학

과 대학신문이 양적으로 팽창되고, 대학신문에 관련된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1982년 8월에는 ‘자유언론실천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이 결성되었다. 대학신문기자연합의 자체평가에 의하면, 결성 이후 침체기(1983~1984) —경비기(1985~1988)—혁신기(1989 이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연합은 ① 편집자율권 쟁취투쟁(사전검열철폐, 사설 집필권 쟁취), ② 예산 자율권 투쟁(예산편성권 집행권 쟁취)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의 公器인 대학언론이 교수·학생·동문들에게 학내소식을 전하고 학구적 관심사를 다루기보다는 “主思論理를 펴는 운동권의 대변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학교와의 마찰도 빈번했다. 6·29 이후에는 발행지연, 배포 중단, 항의농성과 신문제작 거부, 징계 등의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 학기에는 주요 대학신문들이 ‘편집권’을 둘러싼 학교측과의 마찰로 발행이 중단되는 진통을 겪은 학교가 많았다.

分離發行이 타당하다

地下新聞과

일본의 ‘미니 코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신

- 1) 최규남, “창간 3주년, 지령 때 호를 맞이하여”, 『대학신문』, 1955.1.7.
- 2) 홍종인, “대학신문의 길은?”, 『교대신보』, 1955.2.11.
- 3) 조효근, “대학신문을 평함”, 『대학신문』, 1955.1.7.
- 4) 강호수, “대학신문의 바람직한 위상”, 『신문과 방송』, 1990.7, p.45.

문이 정립해야 할 위상과 역할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학생신문과 학교신문을 分離하거나 더욱 多元化하는 방법이다. 6공화국 이전까지는 대학신문이 여러 가지 취약점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유인물을 만들어 낸 일이 있었다. 『자유언론』, 『아크로폴리스』, 『전진』, 『선구자』, 『민주넷』, 『자유전선』, 『民草』, 『민주의 소리』 등의 제호로 각종 유인물이 나돌았다.

물론 그 유인물들이 대학과 대학신문의 본질 및 이 사회 전체의 본질에 대하여 사려깊게 생각한 뒤에 만들어진 것이 라고는 평가할 수 없으나, 오늘날 대학과 대학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⁵⁾ 이러한 일종의 地下新聞들이 나타났던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신문이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유인물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이를 보완할 매체가 나타나게 된다. 공개적인 언론이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지하언론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는 언론자유에 제약으로 인해 대학신문은 그 성격상 다변화하는 학문세계와 사회상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도 하나의 매체가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작은 매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60년 전후의 미·일 안보조약에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와중에서 ‘미니 코미’(ミニコミ: Mini-Com.)라는 일본식 조어가 생겨났었다. 미니 코미는 개인, 작은 집단 또는 대집단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소규모 매체로서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타자를 치거나 등사판 등을 이용한 빈약한 인쇄물이었다. 그 후 의미가 확대되어 학교신문, 서클지, 기관지, 로컬지 등도 미니 코미의 범주에 넣게 되었다.⁶⁾ 이러한 미니 코미는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대기업화하는 매체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오늘에도

수많은 종류의 간행물들이 주간, 월간 또는 부정기로 발행되고 있다. 미니 코미의 특징은 ① 자주·자립성, ② 반권위·반체제, ③ 개성·독자성 등으로 규정짓기도 한다.”

媒體 分業化·專門化 시대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나돌던 유인물들은 일본의 미니 코미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비합법적인 지하신문의 일종이었으므로 6공화국 이후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출판물의 발행이 자율화된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5공화국 이전의 지하 유인물들은 대학신문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진한 이념의 구현이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에도 원인의 일단이 있지 않았나 반성해 볼 일이다.

'80년대 이전의 대학신문 기자들은 엘리트 학생이었으나⁷⁾, 지금은 자질과 학업성적 문제로 학교측과 마찰이 일어날 정도로 학업에 등한한 형편이다. 상당수의 기자가 학업을 등한히 하고 신문제작에 매달려 학사경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⁸⁾ 이로 인해 학교측이 성적 미달 기사를 헤엄하던 학생들은 학원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는 사례가 흔히 일어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학

5) 이규중, “대학신문의 미래상”, 1985년도 동계 전국 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세미나 주제논문, 『신문과 방송』, 1985.3, p.93.

6) 田村紀雄, 『ミニコミ論理』(東京:學陽書房, 1976), p.3 이하 참조.

7) 丸山尙, 『ミニコミ同時代史』(東京:平凡社, 1985), p.12. 일본에서 발행되는 수많은 미니 코미 가운데는 『朝鮮研究』(1962년 1월 창간, 월간)와 『韓國通信』(1975년 7월 창간, 월간)도 포함된다.

8) 양영태, “한국대학언론의 구조적 특성연구”, 서울대 신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3, p.33.

9) 세계일보, “대학신문 파행 어떻게 풀어야 하나”, 1992.3.9.

생기자의 인기도 크게 떨어져 최근에는 기사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도 대폭 줄어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학신문은 '학교신문'과 '학생신문'을 따로 발행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빛 가지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는 출판물과 정보의 홍수시대라는 것이다. 제 6공화국 이후 언론의 자유는 크게 신장되었다.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이 자유로워졌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일간지와 주간지, 월간지들이 나타났다.

매스 미디어의 발전은 EPS 곡선이라 이르는 엘리트-대중-전문화 (elite-popular-specialized curve)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엘리트단계의 언론은 소수의 여론 지도자들에게 주로 호소하고 그들에 의해 소비된다. 대중화단계에 이르면 미디어는 국민 대다수에게 호소하고 그들에 의해 소비된다. 전문화단계가 되면 단편적이고, 전문화된 분야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에 의해 소비된다는 것이다.¹⁰⁾

우리나라의 言論環境은 전문화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신문도 전문화된 독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영향력도 전문화된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신문들도 더욱 細分化·專門化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생신문은 학생운동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신문은 학교의 주장을 학생들과 일반 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아카데미즘에 충실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法的 문제의 責任 소재

둘째, 두 종류의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현 대학신문 체제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적인 발행인은 총장이고, 편집인은 주간교수로 되어 있다. 그 아래에 학생 편집장을 비롯한 기자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기자들은 編輯權을 요구하고 있다. 편집권이 학생기자들에게 이양되고 신문이 학생들의 자의에 따라 제작되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언론은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명예훼손,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고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법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학신문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으며, 실질적인 제작에 간여하지 못하는 발행인(총장)과 주간교수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는 責任所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학생편집자가 책임지는 신문의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전국 대학신문의 독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므로 대학신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크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신문은 대학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론의 광장이라기보다는 운동권의 논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셋째, 이미 각 대학에는 기존의 학보 외에 새로운 매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학교측에서 내놓는 대외홍보용 소식지를 비롯하여 단대 학과별 학회지, 동아리회보 같은 새로운 매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같은 몇 개 대학에서는 학교측이 독자적 신문발행을 추진하거나 신문 발행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학 구성원의 성향이 多樣化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매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신문의 편집권을 학생들이 장악하여 대학신문들이 對정부비판 등 진보적 성향의 논조를 고수하는 바깥에 상대적으로 다양성을 상실한 것도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¹¹⁾

10) J.C. Merrill, *Media Messages and Men*. 오인환 외 역, 『매스컴과 사회』(삼영사, 1982), p. 46.

11) 한국일보, "학보서 단대·학과·학회별 회보까지, 대학언론 전성시대", 1992. 6. 23; 한국일보, "토론·정보의 장 대학신문 다양성 회복을", 1992. 8. 27.

4·19 직후였던 30년 전의 대학은 학부중심의 대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전문화와 분업화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도 급격히 늘었다. 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도 많아졌다. 대학의 중심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신문사에서 대학원생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가지만, 신문은 여전히 학부 중심인 것이다.¹²⁾

個性 있는 新聞을 지향하며

대학신문의 複數 發行 또는 多樣化에 대해서는 기존 학보의 학생기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없을 때에는 학생들이 기존 언론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는다고 자임하면서 지하신문 또는 대항언론을 발행했는데, 이제는 대학신문에 대항하는 학교당국의 언론을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대학신문이 二元化되면서 얻는 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

다. 우선 학교신문은 학교신문대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부생들이 만드는 대학신문도 더욱 전문화가 강화되면서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학생신문은 그동안 학생들이 내려고 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런 주의나 주장이 과연 타당하고 합당한가를 복수언론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¹³⁾

대학신문이 갖는 특성은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의 調和에 있다. 대학신문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共存하는 것이지만, 일반신문과는 달리 비영리적이고 학생들의 손에 의해 제작된다는 점에서 강점과 한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신문은 타신문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한 부라도 더 많이 팔아야 존립할 수 있는 반면에 대학신문은 경쟁상대가 없고 비영리적이다. 독자의 비위를 맞추고 지속적인 취향에 영합할 필요가 없이 확보된 예산과 광고료를 가지고 안심하고 제작할 수 있는 것이 대학신문이다. 따라서 기성의 틀에 얽매

이지 않고 자유로운 위치에서 과감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그 제작의 주체가 프로페셔널한 기성기자가 아니라 학생신문인 아마추어기자들이 만든다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대학신문은 일반신문이 생각은 있으면서도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을 참신한 감각과 영리를 초월한 자유로운 實驗精神으로 아카데미한 입장에서 개척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신문들은 이러한 장점을 살리는 일면이 있는 반면에 한계성도 많이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용면에서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조화를 이루고, 제작실무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이 손을 잡는 개성있는 신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창조와 사회발전의 역군이 될 젊은 지성인들이 진리와 정의의 정신을 배우는 전당에서 정열을 불태우고 고민하는 모습이 반영되도록 自律性을 부여하면서도 質的 向上을 위한 지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2) 김영석, "대학신문 이대로 좋은가?", 『저널리즘비평』, 1992년 3/4호 통권 제8호.

13) 위의 글.